

증평,()집

올해 증평군은 스무 살 청년이 되었고, 증평기록관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평기록관은 지역의 독립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주민들의 시민정신을 이어받아 증평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만들어 주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2018년 『증평, 살기 좋은 너른 터』와 2020년 개관기념전 『증평, 첫 번째 기억』, 2021년 『증평, 기록의 정원』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증평,()집』은 주민들의 기억과 증평의 역사 기록으로 구성한 기록전시회입니다.

증평기록관의 주인이 주민이듯이 증평기록관 기록 전시의 주인공은 모두 증평 주민입니다.

이번 전시 『증평,()집』은 증평기록관에서 출발해 원도심의 거리를 지나 옛 성모유치원으로 이어집니다. 증평기록관과 옛 성모유치원에서는 주민들의 기억과 증평의 역사로 구성된 기록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고, 두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원도심 거리에서는 살아 있는 기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역사와 문화의 도시 증평에서 멋진 가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평 에코 아카이브 전시)



원도심의 거리에는 증평 사람들의 일상과 노동, 기억과 역사가 담겨 있는 많은 집과 상점,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증평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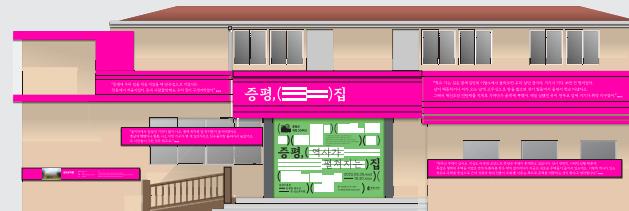
‘집-공동체’이자 살아 있는 ‘아카이브-기록관’입니다. 증평 에코 아카이브에서는 두 가지 기록 콘텐츠를 직접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평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선정한 기억의 터와 직업 장인들의 노포, 그리고 증평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증평기록관 전시)



증평기록관은 주민들과 함께 증평의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기록을 중심으로 이번 증평기록관 전시는 기록전시 벽부장과 아일랜드 진열장, 기록카페 세 공간에서 전개됩니다. 푸른색 기록전시 벽부장에는 지금까지 증평기록가와 증평기록관이 제작한 60권의 증평기록집이, 아일랜드 진열장에는 증평군의 독립 과정이 담긴 민주주의의 역사가, 기록카페 갤러리에는 증평도심의 역사적 변화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 성모유치원 전시)



옛 성모유치원은 1982년 준공되어 이듬해 유아원으로 개원한 어린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1층이었던 이 유치원은 1994년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옛 성모유치원 전시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하는 집’과 ‘기억의 집’으로 구성된 1층에는 증평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상의 집’들이 모인 2층에는 증평사람들이 만들어 온 주택의 역사와 건축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

증평,()집

()

2023.08.30.wed — 10.30.mon) (



월-토요일, 10시-18시
추석연휴 9/28-9/30 휴관

()

증평기록관
증평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별관 1층
043-835-3777
jparchives@korea.kr

()

증평기록관
증평읍 원도심
옛 성모유치원

증평 원도심 에코 아카이브 지도



- 0 증평기록관
- 1 옛 증평역 자리
- 2 옛 완행버스 터미널 자리
- 3 초가집 개량 슬레이트 지붕집
- 4 옛 증평읍사무소와 증평 최초의 극장 자리
- 5 부여여인숙
- 6 윗장뜰 최초의 공동우물 장소
- 7 미암상회와 재건상회, 술도가와 기름집
- 8 술도 가자리
- 9 증평 최초의 기름집 자리
- 10 장동이발관과 증평 최초의 도정공장 자리
- 11 금 방앗간 자리
- 12 2층 주택
- 13 장동1리 경로당
- 14 1층 주택
- 15 증평읍연초생산협동조합 자리
- 16 옛 엽연초재건조장과 한일연초수출주식회사 자리
- 17 삼일아파트
- 18 원도심 거리
- 19 지붕 얹은 집
- 20 불란서주택
- 21 증평성당
- 22 옛 증평메리놀병원 자리
- 23 옛 성모유치원

